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강보선**

＜차 례＞

Ⅰ. 서론
Ⅱ. 교과서 북한 어휘 선정의 기준
Ⅲ. 교과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검토
Ⅳ. 결론

Ⅰ. 서론

국어 교육에서 북한어는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국민공통 교육과정만을 고려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국어지식' 영역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 문법 영역에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1-3학년군]에서 북한어를 다루고 있다.[1] 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 이해'가 성

* 이 논문은 제49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1. 9. 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2011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kbswin11@snu.ac.kr)
1) 각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취 기준상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문 규범과 관련된 성취 기준의 하위 요소로 북한어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각 교육과정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 시대의 국어 준비'는 이들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남북한 언어는 발음, 억양과 어조, 어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중 남북한의 어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영근, 1999 참조). 따라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교과서에서 다룰 때, 남북한의 어휘 차이가 중추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7차 중3 국어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15종의 중2 국어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남북한 어휘 차이의 원인, 어휘 차이의 유형, 어휘 차이의 내용 등이 다루어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의 어휘이다. 북한의 어휘를 남한의 어휘[2]와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어휘 차이를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어휘는 '통일 시대의 국어 준비'라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인데, 그 극복의 정점에 남북한 어휘 차이의 극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북한 어휘를 교과서에 수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과서에 수록할 북한 어휘(이하 교과서 북한 어휘)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과서 북한 어휘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15종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를 이 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북한 어휘는 '북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남한 어휘는 '남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떤 단어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사용되면 그 단어는 북한 어휘에 속하면서 동시에 남한 어휘에도 속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단어의 집합을 가리킬 때는 '어휘'를, 개별 단어를 가리킬 때는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광해, 1993 참조).

Ⅱ. 교과서 북한 어휘 선정의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 북한 어휘는 학습자들이 남북한 어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어휘는 그 수가 수십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중 어느 어휘를 교과서에 수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 북한 단어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관규(2004 : 419)에서는 합목적성, 유용성, 빈도성, 흥미성을 내용 선정 기준으로 삼되, '합목적성'과 '유용성'은 핵심 기준이 되며, '빈도성'과 '흥미성'은 보조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3] 그러나 이홍우(2006 : 122)에서는 '흥미'를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게 되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는 대부분 부적합하게 되고 누구의 흥미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가치 있는 상태로 끌어 올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실체로서의 '흥미'는 교과 내용 선정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북한 어휘 선정 기준으로 합목적성, 유용성, 빈도성 기준만을 설정하였다.

'합목적성'은 학습 목표 달성에 합당한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는 성취 기준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즉, '(1) 남북한의 언어 차이 이해 (2) 통일 시대의 국어 준비'가 학습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3) 이관규(2004)에서 제시한 이 네 가지 기준은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기준들이다. 그러나 방대한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 위상이 국어교육의 다른 내용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국어사 내용 선정 기준은 북한 어휘 선정 기준 설정에 참고할 만하다.

교과서 북한 어휘는 학습자가 남북한의 어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중 두 번째 목표는 다음의 '유용성' 기준과 일치한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합목적성'을 첫 번째 학습 목표와만 관련시켰다.

'유용성'은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어 생활'의 범위를 학습 목표에서 강조한 '통일 시대의 국어 생활'로 확장한다면 교과서 북한 어휘는 학습자가 통일 시대의 국어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휘여야 한다. 즉, 남북한의 어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어휘, 남북한의 어휘 차이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휘가 교과서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유용성' 기준은 학습 목표의 두 번째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빈도성'은 빈도가 높은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북한 어휘의 경우 실제 북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 대신에 북한의 말과 글에서 두루 사용되는 어휘가 수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어휘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이들 기준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기준1과 기준2가 핵심 기준이 되고 기준3은 보조 기준이 된다.

기준1. 남북한 어휘 차이를 잘 보여 주어야 한다.
기준2.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준3. 북한의 말과 글에서 자주 사용되어야 한다.

Ⅲ. 교과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검토

1. 교과서 북한 어휘의 성격 및 유형별 목록

1.1. 교과서 북한 어휘의 성격

남북한 어휘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차이, 방언적 차이,[4] 규범 언어의 차이, 서구 문물 유입,[5] 말다듬기[6]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들 요인은 남북한 어휘 전체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남북한 개별 단어의 의미 차이, 형태 차이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차이를 의미와 형태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남북한 어휘는 동형동의어,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남북한 특수어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7] 학습자는 각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 어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어휘 차이 극복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개별 북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단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어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 북한 어휘는 수단이고 남북한 어휘 차이 이해가 학습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북한 어휘는 학습

4) 남한에서는 서울 방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는 평양 방언을 중심으로 표준 어휘를 선정하고 그 외의 지역 방언 중 일부를 표준 어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방언 차이가 있다.

5)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때 남한은 영어식으로, 북한은 러시아식을 주로 따른 것도 어휘 차이를 발생시켰다.

6)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과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이 국가 주도로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남북의 어휘 차이를 더 심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7) 조오현 외(2002)에서는 남북한 어휘 차이를 (1)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2)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말, (3) 새롭게 생긴 말, (4) 북한의 속어, 비어, (5) 남북한의 은어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의 구분에 따르자면 (1)은 이형동의어에, (2)는 동형이의어에, (3), (4), (5)는 남북한 특수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1.2. 교과서 북한 어휘의 유형별 목록

본고의 검토 대상인 교과서 북한 어휘를 앞서 간략히 언급한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1) 유형1 : 이형동의어[9]

남북한에서 형태는 다르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북한 단어(남한 단어)[10]
가는귀먹기(난청), 가는밸(작은창자), 가두녀성(가정주부), 가두배추(양배추), 가락지빵(도넛), 가로막대(크로스바), 가슴띠(브래지어), 가마치(누룽지/눌은밥), 가무이야기(뮤지컬), 가슴혜염(평영), 가시아버지(장인), 가시집(처가집), 가위주먹(가위바위보), 가찹다(가깝다), 갑작바람(돌풍), 갑작변이(돌연변이), 강가강(갠지스 강), 강떼(생떼), 같기식(등식), 개수끼(옥수수), 거꾸로서기(물구나무서기), 거님길(산책로), 건건이(반찬), 건늠길(횡단보도/횡단로), 게사니(거위), 고급 위생지(티슈), 고다(떠들다), 고뿌(컵), 골받이(박치기), 골프스트림(북대서양 해류), 곱하기(곱셈), 공격어김(오프사이드), 공몰기(드리블), 공민증(주민등록증), 과따대

8) 참고로 이 유형 구분은 연구자의 구분이 아니라 교과서의 구분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각 유형에 적절하지 않은 북한 어휘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남북한 어휘를 비교하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북한 특수어 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강보선, 2008 참조). 다만, 교과서에 수록한 북한 단어가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북한 단어가 제시된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해당 유형을 구분하였다.

9) 블룸필드(1993)는 개개의 언어형식은 일정하고도 특정한 의미를 갖는데, 그 형태가 음소적으로 다르면 의미도 다르므로 실질적인 동의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임지룡, 1998 : 137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고의 '이형동의어'는 '이형유의어'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형동의어'에 속하는 남북한 단어들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형유의어'가 아니라 '이형동의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미세한 의미 차이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10) 괄호 안의 남한어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남한어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남한어가 다를 경우, 빗금(/)을 사용하여 모두 표시해 두었다. 두음법칙 차이로

북한 단어(남한 단어)
다(몹시 떠들다), 과일단물(주스), 곽밥(도시락), 관성차(롤러코스터), 교예(곡예), 교화소(교도소), 구답시험(구두시험), 구석차기(코너킥), 구운 빵지짐(와플), 구팡돌(디딤돌), 군중가요(대중가요), 궁냥(궁리), 귀환점(반환점), 규모(스케일), 귤물(오렌지 주스), 그림영화(만화영화), 그림종이(도화지), 기동(부팅), 기름밥(볶음밥), 긴공련락(롱패스), 긴부리까치도요(검은머리물떼새), 긴양말(스타킹), 긴 연락[11](롱 패스), 깔리만딴 섬(보르네오 섬), 껴울림(공명), 꼬부랑 국수(라면), 꽝포(거짓말), 꽝포쟁이(허풍쟁이), 꼭두(정수리), 꼴(골), 꽂아넣기(덩크슛), 꽉새(슴새), 끌배(예인선), 나누기(나눗셈), 나뉜옷(투피스), 나들문(출입문), 나리옷(드레스), 나비혜염(접영), 날거리(격일), 날래(빨리), 남새(채소), 납작못(압정), 낮전(오전), 내굴(연기), 내굴찜(훈제), 내민층대(발코니), 냄비탕(찌개), 냉동기[12](냉장고), 넉셈(사칙/사칙연산), 녀성고음(소프라노), 녹화기[13](비디오), 농사차비(농사 채비), 누운혜염(배영), 늘푸른나무(상록수), 다리매(각선미), 다진 쇠고기와 빵(쇠고기 햄버거), 단고기(개고기), 단물(주스), 단얼음(빙수), 단졸임(잼), 달린옷(원피스), 닭공장(양계장), 닭알(달걀), 닭알부침(계란프라이), 닭알두부(달걀찜), 닭치기(양계), 닿이선(접선), 댕기운동(리본 체조), 더미구름(적운), 더하기(덧셈), 덜기(뺄셈), 도적글(표절), 도화·공작(미술), 도마도(토마토), 돈가방(지갑), 돋구다(돋우다), 돌아치다(바쁘다), 동강옷(투피스), 동약(한약), 두 번 찰칵(더블 클릭), 두제곱뿌리2(루트2), 들놀이(야유회/소풍), 딸라(달러), 땅고집(옹고집), 땅크(탱크), 떼레비(텔레비전), 뜨더국(수제비), 뜨락또르(트랙터), 라지오(라디오), 려과담배(필터담배), 련락(패스), 로씨야(러시아), 로정(노선), 료해(파악), 료해하다(이해하다), 리봉(리본), 마라손(마라톤), 마사지다(부서지다), 마쟈르(헝가리), 말강스럽다(말끔하다), 말꼬리 잇기(끝말잇기), 말밥(구설수), 망돌(맷돌), 망 시민(네티즌), 망 유람(인터넷 검색), 머리받기(헤딩), 머리빈침(머리핀), 멎은화산(휴화산), 모임(집합), 몸까기(다이어트/살빼기), 몽당(먼지), 무더기비(장대비), 무딘삼각형(둔각 삼각형), 묶음 법칙(결합 법칙), 문지기(골키퍼), 물고기 지원(어업지원), 물들이기(염색), 물들체(염색체), 물말(하마), 물크림(로션), 미누스(마이너스), 바깥닿이(외접), 바꿈법칙(교환 법칙), 바른사각형(정사각형), 바삭과자(비스킷), 바재이다(우물쭈물하다), 발딱코(벌렁코), 밥곽(도시락), 밥길(식도), 방거두매(방청소), 방조하다(도와주다), 배띠(복대), 밸통(심통), 벌가리아(불가리아), 벌넣기(자유투), 벌차기(프리킥), 보숭이(고물), 보이라(보일러), 볶음머리(파마머리), 볼웃음(미소), 봉사기(서버), 부름종(초인종), 불타기 반응(연소 반응), 불탈성(가연성), 빈모임(공집합), 빛량(광량), 빠나나(바나나), 빨래집(세탁소), 뺄혜염(자유형), 뽈(공), 뽈스카(폴란드), 뾰족삼각형(예각 삼각형), 삐자(피자), 사귀다(교차하다), 사귐(교집합), 사귐길(교차로), 사귐점(교점), 사람그림(인물화), 사탕가루(설탕), 산보(데이트), 산줄기(산맥), 살결물(로션), 살물결(스킨로션), 상기(아직), 상학 시간(등교 시간), 새리새리(알쏭달쏭), 새리새리하다(아리송하다), 색동다리(무지개), 샤와(샤워), 샤쯔(셔츠), 설기과자(카스텔라), 섯(정지), 성성이(오랑우탄), 세대주(남편), 소래(대야), 소조 활동(특별활동), 소학교(초등학교), 손가락말(수화), 손가락총질(손가락질), 손기척(노크), 손전화(휴대

인한 이형동의어는 생략하였다.

11) 북한의 규정에 따라 '긴련락'으로 표기해야 한다.

12) 북한의 규정에 따라 '랭동기'로 표기해야 한다.

북한 단어(남한 단어)
전화), 손톱 물감(매니큐어), 솔솔이(물뿌리개), 송아지동무(소꿉동무), 수원(수행원), 수지연필(샤프펜슬), 수표(서명), 숙보다(얕보다), 차넣기(슛), 스케트(스케이트), 스케트장(스케이트장), 슬픔증(우울증), 식의주(의식주), 썩음막이약(방부제), 쏘다(아프다), 아낙각(내각), 아낙중심(내심), 아빠트(아파트), 안같기식(부등식), 알아맞추기 경연 대회(퀴즈 프로그램), 어김다리(육교), 얼굴가리개(마스크), 얼음과자(빙과),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업간체조(쉬는 시간에 하는 체조), 여러마디식(다항식), 여러해살이(다년생), 여벌(백업), 연락(패스)[14], 열스럽다(창피하다), 열올림법(십진법), 오마니(어머니), 오목샘(보조개), 오무림살(괄약근), 오징어(낙지), 왁새(뻐꾸기), 완제되다(나누어 떨어지다), 우뢰(우레), 우림술(과일주), 우정(일부러), 원주필(볼펜), 위생실(화장실), 위생지(화장지), 유희 오락(컴퓨터 게임), 율라지보스또끄(블라디보스토크), 이닦이가루(치약), 이솔(칫솔), 인민학교(초등학교), 인차(곧/이내), 인터네트(인터넷), 일군(일꾼), 입성(옷), 잊음증(건망증), 자료 기지(데이터 베이스), 잔짐(소화물), 재빛(잿빛), 전기여닫개(스위치), 전등알(백열전구), 정무원(공무원), 정보 통신 기술 판매소(PC방), 젖먹임칸(수유실), 조국(우리나라), 조선글(한글), 조선옷(한복), 좌락좌락(좍좍), 주머니종(삐삐), 주무랑마봉(에베레스트 산), 중간방어수(미드필드), 중간지대(미드필드), 중앙으로 꺾어차기(크로스), 지내(너무), 지은옷(기성복), 지지개(찌개), 직결 유희(온라인 게임), 직승기(헬리콥터), 직장세대(맞벌이), 진단장(화장), 집짐승(가축), 집합(모임), 짜르다(짧다), 짬(잼), 차기(킥), 차마당(주차장), 차넣기(슛), 찬국수(냉면), 찬단물(냉차), 찬물미역(냉수욕), 창가림(커튼), 창가림막(커튼), 찾아보기(색인), 촌바우(촌뜨기), 추위막이옷(방한복), 치기수(타자), 칼제비(칼국수), 큰먼바다고기잡이(원양 어업), 큰물(홍수), 콤퓨터 건반(컴퓨터 자판), 키로그램(킬로그램), 탁구알(탁구공), 테노르(테너), 텔레비죤(텔레비전), 텔레비죤 소설(텔레비전 드라마), 튀긴고기떡(어묵), 튀어나오기(팝업), 패다(새우다), 푸른차(녹차), 플루스(플러스), 피돌기(혈액순환), 피뽑기(채혈), 필갑통(필통), 하나비(할아버지), 하늘소(당나귀), 합친말(합성어), 해돌이(나이테), 향참외(멜론), 혀이끼(설태), 호상간(상호간), 혼자말(독백/혼잣말), 휘거(피겨스케이팅), 흰피알(백혈구)

(2) 유형2 : 동형이의어

남북한에서 형태는 같으나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북한 단어=남한 단어
계급투쟁, 궁전, 귀부인, 극성스럽다, 긴장하다, 동무, 동지, 맹랑하다, 바쁘다, 사회주의 혁명, 선동, 선전 선동, 소행, 세포, 시시하다, 아바이, 아저씨, 이악하다,[15] 일없다, 접대원

13) 북한의 규정에 따라 '록화기'로 표기해야 한다.
14) 북한의 규정에 따라 '련락'으로 표기해야 한다.
15)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악하다'를 북한 특수어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3) 유형3 : 북한 특수어[16)]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로서 주로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특수어
결산분배, 고르롭다, 그쯘하다, 노엽히다, 독보회, 량권, 생활총화, 싱싱, 자랑차다, 장간방, 차례지다, 충성동, 풍년씨앗, 피타다, 학습반, 농장원, 들모임, 모록이, 물갈기, 밥공장, 사품치다, 소년단생활, 이악하다, 인민배우, 진소리, 주렁지다, 흥탕망탕, 쟁글쟁글

2. 기준별 교과서 북한 어휘의 검토

본고에서 설정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교과서 북한 어휘의 적절성을 검토[17)]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각 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합목적성 : 남북한 어휘 차이를 잘 보여 주는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잘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남한 단어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가 정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대응을 통해 남북 어휘 간에는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이형동의어, 남북한 특수어 등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남한 어휘와 차이를 보이는 북한 어휘가 차이의 유형별로 골고루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검토 결과 남한 단어에 대응

16) '남한 특수어'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17) 북한 단어를 검토할 때, 해당 단어가 남한 단어인지, 북한 단어인지의 판단은 철저히 사전을 따랐다. 사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전이 남북 단어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됨은 부인할 수 없다. 남한 사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으며, 북한 사전은『조선말대사전(증보판)』을 참고하였다.

하는 북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와 남한 어휘와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북한 어휘를 일부만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어휘 대응쌍의 제시 방식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교과서들에서 남북 어휘 대응쌍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습자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남한 어휘에 대응되는 북한 어휘를 온전히 보여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 남한 단어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의미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교과서 북한 어휘 중에는 남한어에 의미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어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는 '주스'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로 '과일단물'과 '단물'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전을 따르면 '주스'에 대응되는 북한 단어는 '단물'이 아니라 '과일단물'임을 알 수 있다.

－주스 :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 (『표대』)
－단물 : ① "민물"을 짠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② 단맛이 나는 물. ↔쓴물.
③ 청량음료나 약품을 만들 때에 쓰는 진하게 졸인 사탕물.
④ 고기불이나 물고기 등을 끓이거나 고았을 때 우러나오는 입맛이 단 구수한 물.
⑤ (남새나 나물등을 절이거나 삶을 때) 제맛이 나는 물.
⑥ "사물에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비겨 이르는 말. (『조대』)
－과일단물 : 과일에서 짜낸 즙에 사탕가루를 넣어 달게 만든것. (『조대』)

이처럼 남북 단어의 대응이 정확하지 못한 예 중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 단어의 대응이 부적절한 예

남한 단어	북한 단어	비고
볶음밥	기름밥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볶음밥'에 대응되는 북한 단어는 '기름밥'보다는 '볶음밥'이 더 적절해 보인다. -볶음밥 : '쌀밥에 당근, 쇠고기, 감자 따위를 잘게 썰어 넣고 기름에 볶아 만든 음식.' (『표대』) -기름밥 : 기름에 볶은 밥. (『조대』) -볶음밥 : 콩알만하게 썬 소고기와 홍당무우, 둥글파를 볶다가 지어 놓은 밥과 데쳐놓은 완두콩을 두고 골고루 섞은 다음 소금, 참기름, 후추가루로 양념을 한 밥. (『조대』)
발코니	내민층대	'발코니'는 남한 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조대』에도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발코니'에 대응되는 북한 단어는 '내민층대'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봐야 한다. '내민층대'의 사전적 의미는 '층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물의 기본테두리보다 밖으로 나오게 만든 층대.'로, '발코니'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발코니 : 건물의 벽체에 판을 내밀어 설치하고 변두리에 란간을 두른것. 살림집과 려관, 관람실 등에서 휴식과 관람 그리고 전망과 물건보관 장소로 리용된다.(『조대』 참조)
비스킷	바삭과자	『조대』에서는 '비스킷'의 북한어로 '비스케트'를 등재하였다. 한편, '바삭과자'의 남한어는 '전병'(煎餠)이다. 『조대』에서 '바삭과자'는 '전병'을 다듬은 말로, 『표대』에서도 '바삭과자'의 남한어로 '전병'을 들고 있다.
뻐꾸기	왁새	'뻐꾸기'의 북한어는 '왁새'가 아니라 '뻐꾸기'이다. 『조대』에 따르면 '왁새'는 '왜가리'와 동의어이다.
옹고집	땅고집	'옹고집'과 '땅고집'은 『표대』와 『조대』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옹고집 : 억지가 매우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 (『표대』 참조) -옹고집 : 통하지 않는 심한 고집. (『조대』 참조) -땅고집 : 융통성이 없는 지나친 고집. (『표대』 참조) -땅고집 : 융통성이 조금도 없는 심한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을 쓰는 사람. (『조대』 참조) 위의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남한의 '옹고집'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는 '옹고집'이고, 북한의 '땅고집'은 남한의 '땅고집'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응 단어의 위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남북한 어휘 차이는 그 위상이 같은 어휘간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즉, 남한 어휘와 북한 어휘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위상이 같은 북한의 문화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표준어에 대응되는 북한 어휘가 문화어가 아닌 지역 방언인 경우가 일부 있었다.

〈표 2〉 문화어가 아닌 방언이 대응된 경우

남한 단어(A)	북한 단어(B)	비고
옥수수	개수끼	'개수끼'는 '옥수수'의 함경북도 방언
어머니	오마니	'오마니'는 '어머니'의 함경남도 방언
빨리	날래	'날래'는 '빨리'의 함경도 방언
연기	내굴	'내굴'은 '연기'의 함경도 방언

(2) 남한 어휘와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북한 어휘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한 경우

남북한 어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형태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 어휘의 형태 차이는 남북의 규범 언어 차이(표준어와 문화어 차이), 말다듬기 사업으로 인한 차이, 두음법칙의 차이,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 외래어표기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북한 어휘를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남북 어휘의 다양한 형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5종의 교과서 중 다양한 형태 차이를 고루 보여 주고 있는 교과서는 드물며, 많은 교과서들이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 등 한두 가지의 형태 차이 유형만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교과서에 수록된 '외래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 :
깔리만딴 섬(보르네오 섬), 마쟈르(헝가리), 뽈스카(폴란드), 주무랑마봉(에

베레스트 산) 등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 :
도마도(토마토), 로씨야(러시아), 마라손(마라톤), 스케트(스케이트), 딸라(달러), 땅크(탱크), 떼레비(텔레비전), 라지오(라디오), 리봉(리본), 벌가리아(불가리아), 보이라(보일러), 삐자(피자), 샤와(샤워), 샤쯔(셔츠), 아빠트(아파트), 인터네트(인터넷), 키로그램(킬로그램), 텔레비죤(텔레비전) 등

형태가 동일한 경우 :
피아노, 아이스크림 등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은 외래어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외래어도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 '형태가 동일한 경우'로 구분된다.[18] 학습자들은 각 유형에 속하는 외래어들을 통해 남북의 외래어표기법 차이에 따른 외래어의 형태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형동의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형태적 차이를 균형 있게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15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한두 가지의 경우만을 소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남북한의 외래어 차이에 대해 편향된 이해를 갖도록 하고 있다. 남북한의 외래어 형태가 전혀 다른 것만 접한 학습자와 남북한의 외래어 형태 차이가 별로 없거나 동일한 것만 접한 학습자는 남북한의 외래어에 대해 전혀 달리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외래어에 대응되는 북한 외래어를 형태적 차이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남북한 외래어의 형태적 차이에 대해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이 중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와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단어를 보고 대응되는 남한 단어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로 보았고, 대응되는 남한 단어를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로 보았다.

(3) 남북 어휘 대응쌍의 제시 방식이 혼란스러운 경우

교과서에는 '이형동의어' 유형에 속하는 북한 어휘가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은 주로 대응 관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이후부터 '남한 단어(A) : 북한 단어(B)'를 간단하게 'A : B'로 표시함).

남한 단어(A)	북한 단어(B)
가정주부	가두녀성

그러나 'A : B'처럼 제시되는 대응쌍은 자칫 '북한에서는 A라는 말이 없다' 또는 '남한에서는 B라는 말이 없다'와 같은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19]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처럼 '가정주부'와 '가두녀성'의 일대일 대응은 북한에서는 '가정주부'라는 말이 없고 '가두녀성'만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정주부'도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A : B'에서 A와 B가 남북한 어느 한 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면 일대일의 대응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단어 제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남북 단어 대응쌍이 다음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모두 일대일로 대응되고 있어 정확한 관계 파악이 어렵다.

남한 단어(A) : 북한 단어(B)

① 남한에서는 A, 북한에서는 B만 있다.
② 남한에서는 A와 B, 북한에서는 B만 있다.
③ 남한에서는 A만, 북한에서는 A와 B가 모두 있다.
④ 남한과 북한에서 A와 B가 모두 있다.

19) 김민수(1997 : 258)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어휘를 마치 남한에서만 쓰이고 북한에서는 안 쓰이는 것처럼 대응시켜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무시하고 이질성만을 강조한 예들이 있다."

남북 단어를 대응시킬 때는 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는 대응쌍의 의미를 대부분 첫 번째 유형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형동의어로 제시된 단어쌍들은 다음과 같이 네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3〉 남북 대응 단어쌍의 유형별 예

남한 단어(A)	북한 단어(B)	유형
볼펜	원주필	①
코너킥	구석차기	②
주차장	차마당	③
채소	남새	④

위의 유형 중 ②, ③, ④의 유형에 속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는 단순히 남한의 A를 북한에서는 B라고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학습자가 대응 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언급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②에 속하는 '코너킥 : 구석차기' 대응쌍의 경우,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는 '코너킥'은 남한 단어이고, '구석차기'는 북한 단어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구석차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단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단어가 아닌 것처럼 오해되는 단어들로는 다음의 단어들이 있다.

> 건건이,[20] 그림영화, 만화영화, 끌배, 날거리, 납작못, 낮전, 노엽히다, 늘푸른나무, 돌아치다, 닭치기, 땅고집, 말밥, 배띠, 볼웃음, 사탕가루, 성성이, 세대주, 수원(隨員), 어김다리, 얼음과자, 업간체조, 여러해살이, 이악하다, 입성, 잊음증, 잔짐, 장간방, 전등알, 진단장, 집짐승, 차례지다, 찾아보기, 칼제비, 큰물, 패다, 피돌기 등

20) '건건이'가 '변변치 않은 반찬'의 의미가 아닌 '음식이 싱겁지 않도록 짠맛을 내는 간장이나 양념장 같은 것'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북한 특수어'가 맞으나 해당 교과서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동형동의어로 보아야 한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조대』와 『표대』에 동일한 의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형동의어이다.

③에 속하는 '주차장 : 차마당'의 경우 『조대』에 '주차장'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쌍을 제시할 때 '주차장 : 주차장/차마당'처럼 제시하여 '주차장'이 북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임을 밝혀 주어야 한다.

④에 속하는 '채소 : 남새' 대응쌍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채소'를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부른다"라고 기술하여, 남한에서는 '채소'만을, 북한에서는 '남새'만을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남새'와 '채소'는 남북한에서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서 둘 다 남한 단어이면서 북한 단어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남새'와 '채소'는 모두 남북한 단어이나 북한은 말다듬기 이후 '남새'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남한은 '채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유용성 :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지금까지의 남북 어휘 차이는 이형동의어의 문제, 즉 남북에서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말로 지칭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형이의어 즉,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이다. 즉, 서로가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상대방의 말을 발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때 의사소통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동형이의어로 인한 갈등은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없다'의 경우 북한에서는 '괜찮다'는 사양의 의미로,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새터민들은 이 의미 차이를 모른 채 '일없다'를 사용하여 남한에서 오해를 받은 적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형동의어뿐만 아니라 동형이의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동형이의어에 대한 예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한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북한에서는 부

정적으로 사용된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속하는 단어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어휘 차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속하는 예로 교과서에서는 '일없다', '소행', '맹랑하다' 등 일부 단어만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21] 물론 남북한 간의 언어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남북한 사람들 간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단어 의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화,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단어의 의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수집한다면, 향후 북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어휘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는 동형동의어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지 않은데, 이는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남북한 특수어가 아닌 모든 단어는 동형동의어이며, 동형동의어는 남북 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형동의어로 분류되는 단어 중에는 다음과 같이 남북에서 단어의 사용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국립국어원, 2010a 참조).

살찌다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 (『표대』)
－몸에 살이 많아지다. (『조대』)
－사용 범위 차이 : 북한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쓰지 않음.

사장
－회사의 책임자. (『표대』)
－출판사나 신문사, 잡지사, 회사 등과 같이 "사"자가 붙은 기관, 기업소

21) 예를 들어, 접미사 '-질'이 붙은 단어(교원질 등)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부정적 의미 없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 '아가씨'가 북한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북한에서는 주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즉, 접대부를 가리킴), '늙은이'가 북한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 방조(幇助)가 북한에서는 법적인 의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도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등을 추가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0a 참조).

의 행정책임자. (『조대』)
—사용 범위 차이 : 남한에서는 작은 가게 주인도 '사장'이라고 부름.

'살찌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북한이 동일하지만 사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 '살찌다'를 북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남북한 사람 간에는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 '사장'이라는 말이 북한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작은 가게 주인까지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게 된다(김현식, 2007 참조). 이처럼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형동의어라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사용역이 다른 단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교과서 북한 어휘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 북한 어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3. 빈도성 : 북한의 말과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가

교과서 북한 어휘 중에는 북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 북한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22] '얼음보숭이'는 북한에서 다듬은 말 중 실패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아이스크림'의 북한 대응어로 제시되어 있고, '크로스바', '롱패스', '식도'의 북한 대응어인 '가로막대', '긴공련락', '밥길'은 북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교과서에 북한 단어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사전 등재어라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가락지빵', '오목샘'과 같은 단어도 제시되어 있어 북한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23]

교과서에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되지 않

22) 비단 교과서뿐만 아니라 북한어 연구물 중에서도 북한 단어를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북한 어휘를 소개하거나 수록할 때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수(1997)의 '국내의 북한어연구 비판'이 참고할 만하다.

23) 한정미(2011)에서는 북한에서 문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북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로 '가락지빵, 얼음보숭이, 독연극, 끌신, 민간화, 오목샘'을 제시하고 있다.

는 단어가 아니라 가급적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잘 사용되는 어휘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가 주도로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고유어와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사전에 등재하였으나 이 중에는 언중들에게 외면받는 단어가 많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고영근, 1999 참조).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실제 북한의 말과 글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새터민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24] 연구자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교과서 북한 어휘를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25]

〈표 4〉 새터민 대상 교과서 북한 어휘의 실제 사용 여부 설문 결과

	북한 단어	① 자주 사용함	② 가끔 사용함	③ 사용하지 않음
1	가는귀먹기	3	1	4
2	갑작바람			8
3	건건이			8
4	그림 영화	3		5
5	기름밥	2		6
6	꼬부랑 국수	4	2	2
7	나들문	1	1	6
8	동약	2	1	5
9	물말		1	7
10	볶음머리	2		6
11	불웃음		3	5
12	부름종			8
13	상학시간		1	7
14	썩음막이약			8

24) 국립국어원(2010)에서도 새터민의 검증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북한의 말뭉치를 활용한 빈도성 조사가 병행되어 북한 어휘의 사용 빈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2011년 8월 9일 인천 남동 하나센터에서 8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77개의 북한 단어에 대한 사용 여부를 물었으나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단어 중 일부를 실었다.

	북한 단어	① 자주 사용함	② 가끔 사용함	③ 사용하지 않음
15	얼굴가리개	2		6
16	이솔			8
17	전기여닫개			8
18	차마당			8
19	찬국수	1		7
20	피돌기			8

이 설문 결과를 보면, '갑작바람', '건건이', '부름종', '썩음막이약', '이솔', '전기여닫개', '차마당', '피돌기'와 같은 단어들은 북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6] 앞으로는 북한에서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교과서 북한 어휘는 남한 어휘와는 교육적 성격이 다르다. 남한 어휘는 그 자체가 학습의 대상인 반면, 북한 어휘는 남북한의 어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수많은 북한 어휘 중 교육 내용에 적합한 어휘가 선정되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과서 북한 어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합목적성, 유용성, 빈도성 등 세 가지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의거하여 교과서 북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합목적성의 기준에서는, 남한 단어에 대응하는 북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남북 어휘의 형태적 차이를 균형 있게

26) 교과서 북한 어휘 전체를 대상으로 새터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연령, 성별, 고향, 학력 등이 다른 다양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국립국어원, 2010 참조).

보여 주지 못한 경우, 남북 어휘 대응쌍의 제시 방식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유용성의 기준에서는, 이형동의어에 속하는 북한 어휘가 많이 수록된 반면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동형이의어에 속하는 북한 어휘가 매우 적게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동형동의어 중 남북에서의 사용역이 다른 북한 어휘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빈도성의 기준에서는, 북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 사전에 있더라도 북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교과서에는 남북한 어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어휘,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는 어휘, 북한의 말과 글에서 두루 사용되는 어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교과서 북한 어휘를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일일이 검토하지 못하였다. 7차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가 별다른 검토 없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현실을 감안하면, 15종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가 앞으로 개발될 교과서에 재수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북한 어휘를 합목적성, 유용성, 빈도성에 따라 검토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어휘를 솎아내고 기준에 부합하는 어휘를 새로 선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강보선(2008), “국어교육에서의 북한 어휘 교육 연구”, 『국어교육』 제45집, 국어교육학회.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원(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0a),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어휘 조사 결과』,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민수 편저(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김현식(2001),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김영사.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1~3, 사회과학출판사.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개정・증보판)』, 교육과학사.
임지룡(1999),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홍사만(2004), “북한 문화어 어휘 연구”,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
한정미(2011),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특징과 화법에 대한 이해”,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분석 대상 교과서

권영민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새롬.
김상욱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창비.
김종철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디딤돌.
남미영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교학사.
노미숙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천재.
박경신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대교.
방민호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지학사.
오세영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해냄.
왕문용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대교.
윤여탁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미래앤컬처그룹.

윤희원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금성.
이남호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미래앤컬처그룹.
이숭원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좋은책신사고.
이용남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지학사.
조동길 외(2010),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비상.

<초록>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강보선

본고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15종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북한 어휘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에 수록할 북한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과서 북한 어휘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합목적성),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는가(유용성), 북한의 말과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가(빈도성) 등을 설정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교과서 북한 어휘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 단어의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자가 남북한 어휘 차이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동형이의어를 매우 적게 수록하고 있었다. 셋째, 북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수록된 경우가 있었다. 향후 남북한 어휘 차이 내용을 교과서에 다룰 때에는 위의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 북한 어휘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남북한 어휘 차이, 합목적성, 유용성, 빈도성

<Abstract>

The Critical Study on North Korean Vocabulary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ocusing on the 8th grade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Kang, Bo-su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ropriacy of North Korean vocabulary in the 15 different kinds of Korean textbooks developed in line with the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2007. For this, I strongly suggested three criteria such that the North Korean vocabulary in textbooks are useful for learner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purposefulness), they contribute to Korean preparing the Korean Language for the unified Korea(usefulness) and they are frequently used in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f North Korean(frequency).

The result of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n vocabulary of textbooks based on these three criteria,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iscovered. First of all, the textbooks do not correctly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vocabulary and the North Korean vocabulary, which it leads learners to misunderstand the vocabulary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Korean vocabulary and the North Korean vocabulary.

Secondly, there are only a few homographs used in the textbooks even though they are useful for the preparation the Korean Language that can probably be used in case of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Third, there are some words that are not currently registered in the dictionary and not even used any more in North Korea.

From now on, when we cover the contents on the vocabulary

differences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it is necessary for the textbooks to contain those North Korean vocabulary which are appropriate to these three criteria.

【Key words】 The vocabulary differences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purposefulness, usefulness, frequency